

社說

儒林오찬

설명장이 지나고 처음 만나
는 한국한시협회 포천시지부
회원 여러분들이 공부를 마치고
오찬을 함께 했다. 평소 유
림회관에 입주해 있어서 자주
만나는 지인들을 초대했다. 그
리고 민투국으로 오찬을 함께
했다.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우리의 조상들이 근본적
인 예로 제시했던 지조와 기개
가 자신의 가장 큰 자랑거리라
고 소개하는 예비후보는 찾
기가 힘들어졌다. 문제는 가치관
상실이라고 볼 수 있다. 과정과
절차의 중요성, 그리고 그 결과
가 가져다주는 가치가 공유되
지 않는 사회라고 볼 수 있다.

이 자리에서 리효종 한국한
시협회 포천시지부 회장의 건
배제의가 있었다. 리 회장은 건
배제의를 통해 2008년 교수신문
이 선정한 희망의 사자성어가
光風霽月(광풍제월)이라며 울
한해 선비의 기품을 간직하는
데 노력하자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선
비의 정신을 노래하고 그 뜻을
후대에 알리고 싶어하는 포천
의 유림들이 마련한 오찬자리
가 마련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
이라 할 수 있다.
이날 뜻깊은 자리를 마련한
유림들의 모습도 머지 않아 우
리의 기억에서 사라질 날이 올
것이다. 그 전에 포천사회가 좀
더 성숙한 사회로 발전하기 위
해서는 포천의 정신, 유림의 정
신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와 사
회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광풍제월은 복숭을 대표하는
시인 황정견이 저명한 철학자
주돈이의 인품을 묘사한 말로
비가 갠뒤의 바람과 달처럼 마
음결이 명쾌하고 집착이 없으며
기분이 시원하고 깨끗한 것
을 의미한다. 따라서 선성이 밝
은 선비의 마음을 비유한 것이
라 할 수 있다.

지금 막 성장하고 있는 아이
들에게 아무 의미 없는 한자 교
육보다는 한자에 담겨진 조상
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더욱 중
요하다. 그리고 그 뜻을 알고
있는 선배들에게 그 뜻을 더 많
이 교육받고 깨닫는 순간이 많
아지도록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
져야 한다.

오랜 전통을 지키며 살아오
면서 선비의 정신을 잊지 말자
는 리 회장의 의지가 담겨 있다
고 볼 수 있다. 이 자리에는 한
시를 직접 강의하고 계시는 유
봉현 선생님과 함께 했다. 우리
나라 한시의 대가로 알려진 유
선생님이지만 만날 때마다 결
순한 자세를 잃지 않는 모습에
더욱 경순해질 수 밖에 없다.

특히 경기도포천교육청은 자
라나는 학생들에게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대한민국의 가치를 알
고 자신의 존재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포천의 선비사상을 교
육할 수 있도록 시스템 마련
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한다.

특히 새해 덕담요구에 한시
한편을 내놓는다. '오동나무는
천년이 되어도 항상 곱조를 간
직하고 매화는 일생동안 출세
살아도 향을 팔지 않는다. 달은
천 번을 쳐도 그 본질은 남아
있다. 버드나무는 백번 꺾여도
새가지가 나온다' 선비의 지조
와 기개를 노래한 시라 할 수
있다.

포천유림의 회원들을 중요한
인적자원(강사)으로 특채하여
학생들에게 교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곧 포천의
정신과 가치를 이어나가는 접
경이 될 것이다.

최근 4·9 총선을 앞두고 국
회의원이 되겠다고 앞다투어

2008 새해설계 ③ 포천시의회 의장 이강림

희망속에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 구현

소선거구제로 풀뿌리민주주의 정착 유도해야

"시민과 함께 열린의정 구현
을 목표로 균형 있는 지역발전
을 이루는 책임의정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생활의정, 회
담속에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 생산적이며 미래를 지향하
는 정책의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2대 포천시의회 전반기 이강
림(사진) 의장이 밝힌 포천시의회
2008년 의정방향을 소개했다. 이
의장은 중선거구제 실시로 민의를 반영
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다고 밝혔
다. 비용 또한 소선거구제 14명의
의원이 활동할 때보다 더 줄어드
는 결과를 낳고 있다. 또한 상임
위 활동도 의원수가 적어 중북
편성되어 실제로 활동에 많은 제
약을 받고 있다. 의원수가 적어
성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어
려운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특
히 집행부의 각 위원회 활동 또
한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3~4개
위원회 활동을 하면 되었는데 중
선거구제에서는 10~13개 위원회
에 소속되어 활동하다보니 업무
과중으로 의정활동에 제약이 많
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소선거
구제로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최근 시장권한대행
체제가 되면서 집행부가 크게 달
라졌다고 한다. 가장 눈에 띄게 달
라진 것은 주요사업에 대해서 의
회와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특히 의회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설명
하기 위해 줄을 서있는 현상도 발
견되고 있다. 의원들 또한 집행부
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칭찬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올해 실시하는 총선과 포천시
장 보궐선거에 대해 이 의장은
"각 후보자들의 선거공약을 잘
살펴보고 포천시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꼼꼼히 추
진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따져서
선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그동안 포천시의회
의 성과에 대해 한탄감만 건설
관련 홍수조절용댐으로 전환을
촉구했으며 사적장 특위를 구성
해 산정호수 탁류방지사설 설치
를 유도했으며 회의진행방법을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알리기 위
해 모의의회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동료의원들에게 바라는 사항
에 대해 이 의장은 "중선거구제
로 어려움이 많은 의원님들의
애로사항을 다 챙기지 못한 점
에 대해 아쉬움이 많다"며 "동료

의원들의 열망, 개인적인 야망
등 일을 할 수 있는 여건마련에
더욱 노력하겠으며 의정활동이
잘 알려지도록 역할을 하겠다"
고 밝혔다.

포천신문에 바라는 사항은 "창
간18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는데
다양한 계층의 위원회 조직과 많
은 독자들이 함께 하는 데 놀랐
다"며 "내 손으로 뽑은 의원들을
밀착취재해 의정활동부분을 홍보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
민의 입장에서 따끔한 질책을 통
해 포천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포천시의회는 생산적이
고 효율적인 회기운영 계획을 마
련하여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토록 하여 시민의 권
익보호와 시민과 함께 하는 의정
상을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회기
운영의 경우 정례회는 매년 2회
40일 이내로 실시하고 임시회는
1회기당 15일 이내로 실시한다.

정례회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
사, 2007회계년도 결산승인, 2008
년도 마무리에산안 심의, 2009년
도 예산안 심의,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의하고 임시회는 시장
주요업무 계획·실적 보고, 시정
에 관한 질문, 추경예산안 심의,
주요사업장 답사,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의, 후반기 의장단 선출
등을 처리한다.

포천시의회 제2대 후반기 의장
단 선출은 전반기 임기가 오는 7
월9일로 만료됨에 따라 다음날인
7월10일에 선출할 예정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中央정부 인프라 활용 지역發展 초석”

김영우 한나라당 예비후보 사무소 개소식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포천시
연천군 선거구에 출마예정인 김
영우 예비후보가 2월16일 신음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사무소 개소
식을 가졌다.

김영우 예비후보의 후원회장
인 이재후 변호사는 "김영우 예
비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은 것은
김 예비후보가 인품과 능력을
갖춘 큰 일꾼이기 때문"이라며
"이번 국회의원에 출마하
는 것은 정치적 세대교체를 위
해서가 아니라 무능과 부패를
청산하고 시민들이 경제적으로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

고 강조했다.
또 그는 "포천과 연천이 떠나
가는 도시가 됐다.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내일에 대한 희망과 꿈
이 없다"면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과 일한 경험과 중앙정부의
인적 인프라를 토대로 지역발전
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우 예비후보는 참석자들
에게 "이번 국회의원에 출마하
는 것은 정치적 세대교체를 위
해서가 아니라 무능과 부패를
청산하고 시민들이 경제적으로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

고 강조했다.
또 그는 "포천과 연천이 떠나
가는 도시가 됐다.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내일에 대한 희망과 꿈
이 없다"면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과 일한 경험과 중앙정부의
인적 인프라를 토대로 지역발전
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포천시연천군 선거구에 출마예정인 김영우 예비후보가 2월16일 신
음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사무소 개소식을 가졌다.

18대 총선 선거사범처리상황실 현판식

포천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 앞에서

포천경찰서(총경 김귀찬)는 2월13
일 오전10시에 포천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 앞에서 제18대 국회
의원선거 관련한 선거처리 상황실
현판식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김귀찬 포천경찰서
장은 "오는 4월9일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금품·향응,
편의제공 등 사전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강화하여 깨끗
하고 공명정대한 국회의원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관련자 전원 최
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경찰서는 2월13일 오전10시에 포천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 앞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처리 상황실 현판식을 실시했다.

군필자 가산점제도 국방위원회 통과

고조흥 국회의원 발의, 합리적인 기준 마련

한나라당 고조흥 국회의원(포천,
연천)이 대표발의한 '군필자 가산점
부여 법안'이 2월13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고 의원은 "최근에도 축구선수의
병역기피 사례가 빈발하듯이 여전
히 병역비리가 그치지 않고 있는
것은 군에 입대하게 되면 본인에게 불
이익이 있다는 생각에 병역을 기피
하는 경향이 아직도 있기 때문"이라
며, "희생한 시간과 기회의 손실에
대해 아무런 보상책이 없기에 이를
보완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취
지를 밝혔다.
고 의원은 또한 99년에 있었던 위

헌판결은 무조건 불평등하다는 것
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 아니고 합리
적인 기준이 만들어지지 않은 불합
리한 차별대우라는 것이었다고 하
면서 이번에는 가산점 부여의 범위
를 위한 관철이 나지 않을 정도로
축소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었
다고 했다.

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주요내
용은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마친
사람이 공무원시험이나 공공기관
의 시험에 응시할 경우 본인이 취득한
점수에 최대 2%, 채용인원의 20%내
에서 가산 점수를 부여하고 부여회
수는 3~5회 혹은 제대 후 4.5년 이

내의 시험에 한해서 가산점을 주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9년 헌법재
판소의 가산점제도가 가산비율도
3~5%로 높고, 혜택의 범위, 횟수의
제한 없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합리한 차별대우라는 위헌판결
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개정한
것이다.

고 의원은 "군필자에게 특혜를 제
공하지는 것이 아니라 군입대 전에
는 미필자라는 이유로 취업에서 배
제되고, 복무기간 중에는 시험을 볼
수도 없으며 복무를 마친 후에는 사
회에 적응하고 취업을 준비하는데
1~2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군필
자들이 취업을 준비하는데 많은 제
약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군에 다녀
오지 않은 사람들과 같이 시작을 한
다는 것은 오히려 불평등한 것이 아
니냐"고 말했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Subscription information for Pocheon News (www.ipcs21.com) including contact details and rates.

Large advertisement for Pocheon News featuring the slogan '언제나 바른뉴스!' (Always Right News!) and the newspaper's name '포천신문'.